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드는 제주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6년 11월 20일 -



제주특별자치도
농 업 기 술 원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귤림추색의 계절…감귤박람회 향연 속으로-3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일보
○	감귤의 미래를 찾다‥ ‘2026 제주감귤박람회’ 개막-6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매일
○	2026 감귤박람회 개막-3면	기술지원조정과	삼다일보
○	아열대 작물 ‘히카마’ 제주 재배 가능성 확인-5면	동부농업기술센터	제주매일
○	아열대 작물 ‘히카마’ 노지재배 가능성 확인-6면	동부농업기술센터	한라일보
○	브로콜리 검은무늬병 피해 우려-3면	서부농업기술센터	제주일보
○	브로콜리 검은무늬병 확산 경고등…방제 필요-9면	서부농업기술센터	제주매일
○	브로콜리 검은무늬병 피해 확산 우려-5면	서부농업기술센터	삼다일보
○	잦은 비날씨에 브로콜리마저…곰팡이병 확산-6면	서부농업기술센터	한라일보
○	2026제주감귤박람회 개최-9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일보
○	한라산 올해 첫눈 관측-1면	-	제민일보
○	출하 시작된 제주산 브로콜리 가격 ‘비상’-6면	-	한라일보

(제주일보: 2026년 11월 20일)

○ 귤림추색의 계절…감귤박람회 향연 속으로-3면

귤림추색의 계절…감귤박람회 향연 속으로

〈橘林秋色〉

23일까지 서귀포농기센터…감귤 품종 200여 점 전시·상담·체험 등



19일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감귤박람회 개막식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했다.

2026 제주감귤박람회가 19일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개막해 오는 23일까지 열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국제감귤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제주감귤 품질 경쟁력을 높일 신품종과 재배기술을 공유하고, 판로와 소비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박람회에서는 품질 경쟁력 향상과 판로 확대를 뒷받침할 전시·교육·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생산·유통·가공·관광을 아우르는 감귤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감귤관'에서는 재래 품종부터 국내 육성 신품종, 품평회 수상작까지 200여 점이 전시돼 감귤의 품종 다양성과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이곳에서는 영농에 활용할 농기계와 농자재 전시도 이뤄지고 있다.

첫날에는 감귤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학회 차원의 논의가 이뤄졌고, 20일에는 구매 상담회가 열린다.

20일과 22일에는 농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사업 설명회가 개최되고, 21일에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제주 육성 신품종 만감류 재배기술 교육이 진행된다.

또한 박람회 조직위는 제주감귤 소비 기반을 넓히고, 지역상권과의 상생도 도모할 수 있도록 감귤 가공식품 홍보와 직거래, 체험·관광을 연계했다고 밝혔다.

감귤 가공식품을 선보여 다양한 활용 가치를 알리는 한편, 직거래 판매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보물찾기 체험과 감귤 따기, 귤 문화 공방 등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 행사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11. 20.
제주일보 3

(제주매일: 2026년 11월 20일)

○ 감귤의 미래를 찾다… '2026 제주감귤박람회' 개막-6면

감귤의 미래를 찾다…'2026 제주감귤박람회' 개막

19~23일,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산업 발전 모색
감귤관·구매 상담·교육 등…관람객 체험·문화 행사도



제주의 늦가을이 탐스러운 귤빛으로 물든다. 제주 감귤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박람회가 막을 올렸다.

제주도와 ㈔제주국제감귤박람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고문삼)가 주최하는 '2026 제주감귤박람회'가 19일 시작해 오는 23일까지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다.

올해 14회째를 맞은 이번 박람회의 주제는 '감귤을 품은 제주! 미래를 여는 감귤!'이다. 생산·유통·가공·관광 등을 아우르는 감귤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박람회에서는 제주 감귤의 품질 경쟁력 향상과 판로 확대를 뒷받침할 전시·교육·상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대한민국 감귤관'에서는 재래 품종·국내 육성 신품종·품평회 수상작까지 200여 점을 전시해 감귤 품종과 우수성을 알린다. 이와 함께 농기계·농자재 전시도 진행된다.

20일에는 구매 상담회가 열려 생산자와 기업이 새로운 거래처를 발굴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21일에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제주 육성 신품종 만감류의 재배 기술을 교육한다. 20·22일에는 농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설명회가 열린다.

이와 함께 다양한 감귤 가공식품을 소개하고 직거래 판매를 진행해 소비 기반을 확대한다.

관람객은 △보물찾기 체험 '감귤왓' △감귤 따기 △귤 문화 공방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으며 서귀포오일장과 공천포전지훈련센터에서 행사장을 오가는 셔틀버스도 이용할 수 있다.

19일 열린 개막식에서 고문삼 제주국제감귤박람회 조직위원장은 "감귤은 제주인의 삶과 역사, 농업인의 땀과 정성이 깃든 소중한 자산이자 자부심"이라며 "이번 박람회가 제주 감귤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품종 갱신과 유통 구조 개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스마트농업에 중점을 두고 감귤 [illegible] 하겠다"고 밝혔다.

11. 20.
제주매일 6

(삼다일보: 2026년 11월 20일)

○ 2026 감귤박람회 개막-3면



2026 감귤박람회 개막 제주 감귤의 품질 경쟁력을 높일 신품종과 재배 기술을 공유하고, 판로와 소비를 넓히는 '2026 제주감귤박람회'가 19일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개막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감귤박람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고문삼)가 마련한 이번 박람회는 '감귤을 품은 제주! 미래를 여는 감귤!'을 주제로 오는 23일까지 열린다. 개막식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 유관기관 관계자, 농업인 등이 참석했다. 고문삼 ㈔제주국제감귤박람회 조직위원장은 개막식에서 "감귤은 제주인의 삶과 역사, 농업인의 땀과 정성이 깃든 소중한 자산이자 자부심"이라며 "이번 박람회가 제주 감귤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1. 20.
삼다일보 3

(제주매일: 2026년 11월 20일)

○ 아열대 작물 '히카마' 제주 재배 가능성 확인-5면

아열대 작물 '히카마' 제주 재배 가능성 확인

기능성 식품 소재 주목

아열대 작물 '히카마'가 제주 동부지역 노지에서 양호하게 자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하기 위해 5월부터 10월까지 히카마 노지 재배 실증을 추진했다.

히카마는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콩과 작물로 덩이뿌리를 생으로 먹으며 식이섬유인 이눌린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 기능성 식품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센터는 이번 실증에서 심는 간격을 달리해 생육 상태와 덩이뿌리의 크기·무게, 상품률 등을 비교·분석했다.

실증 결과 넓은 간격으로 심을수록 덩이뿌리가 무거워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꽃따기를 한 구역의 덩이뿌리가 가장 무거웠다.

11. 20.
제주매일 5

(한라일보: 2026년 11월 20일)

○ 아열대 작물 ‘히카마’ 노지재배 가능성 확인-6면

아열대 작물 ‘히카마’ 노지재배 가능성 확인

동부농기센터, 기술 정립·판로 확보 방안 모색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가 원산지로 건강 기능성 식품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아열대 작물 ‘히카마’가 제주지역에서 재배 가능성이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하기 위해 5월부터 10월까지 히카마 노지 재배 실증을 추진했다. >>사진

히카마는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콩과 작물로, 덩이뿌리를 생으로 먹으며 식이섬유인 이눌린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 기능성 식품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센터는 실증에서 심는 간격을 달리해 생육 상태와 덩이뿌리의 크기·무게, 상품률 등을 비교·분석했다.

촘촘히 심은 40×20㎝ 구역 일부에서는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두 차례 꽃따기를 해 덩이뿌리 비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실증 결과 넓은 간격으로 심을수록 덩이뿌리가 무거워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꽃따기를 한 구역의 덩이뿌리가 가장 무거웠다.



꽃따기를 하지 않은 조건에서 40㎝ 간격으로 한 줄 심은 구역의 덩이뿌리 한 개당 평균 무게는 908.8g으로, 40×20㎝ 구역(690.2g)보다 무거웠다.

동부농업기술센터는 적절한 심는 간격과 꽃따기 시기 등 재배기술을 마련하고, 알맞은 수확 시기를 파악하는 한편 소비자 인지도 향상과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1. 20.
한라일보 6

(제주일보: 2026년 11월 20일)

○ 브로콜리 검은무늬병 피해 우려-3면

브로콜리 검은무늬병 피해 우려

서부지역서 증상 확인…철저한 예찰·조기 방제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는 최근 서부지역 브로콜리 재배 포장 과정에서 검은무늬병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농가의 철저한 예찰과 조기 방제를 19일 당부했다.

센터가 지난 18일 제주시 한림읍과 한경면, 서귀포시 대정읍과 안덕면 등 주요 재배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예찰을 시행한 결과 브로콜리 잎과 줄기에서 검은무늬병 증상이 확인됐고, 일부 재배지에서는 수확기 꽃봉오리에서도 병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검은무늬병 발생은 지난달부터 이달 중순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잦은 비가 이어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센터는 분석했다.

검은무늬병은 곰팡이에 의해 발생하며, 초기에는 잎에 황록색의 작은 반점이 나타나다가 점차 암갈색의 겹무늬로 확대되고, 반점 주변이 누렇게 변하는 것이 특징이다.

꽃봉오리에 병이 발생하면 해당 부위가 검게 변하거나 썩어 상품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조기 발견과 방제가 중요하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배지를 수시로 살펴 병든 잎 등을 조기에 제거하고, 병 발생 초기부터 등록 약제를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살포해야 한다. 더욱이 도내 전체 브로콜리 재배면적(1009.4㏊)의 73.4%가 서부지역에 위치해 있어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센터 관계자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배지 예찰을 강화하고, 등록 약제를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적기에 방제해 달라"고 말했다.

진유한 11/20, 제주일보 3

(제주매일: 2026년 11월 20일)

○ 브로콜리 검은무늬병 확산 경고등…방제 필요-9면

브로콜리 검은무늬병 확산 경고등…방제 필요

18일 서부지역서 발생 확인…높은 기온·잦은 비 원인

최근 서부지역 브로콜리 재배포장에서 검은무늬병 발생이 확인됐다. 농가의 철저한 예찰과 조기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제주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8일 한림읍·한경면·대정읍·안덕면 등 브로콜리 주요 재배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예찰을 진행했다. 그 결과 브로콜리 잎과 줄기에서 검은무늬병 증상이 확인됐다. 일부 재배지에서는 수확기 꽃봉오리에서도 병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은무늬병은 곰팡이에 의해 발생한다. 초기에는 잎에 황록색의 작은 반점이 나타나다가 점차 암갈색의 겹무늬로 확대되며 반점 주변이 누렇게 변하는 것이 특징이다. 꽃봉오리에 병이 발생하면 해당 부위가 검게 변하거나 썩는다.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지난달부터 이달 17일까지 이어진 평년보다 높은 기온



과 잦은 비를 검은무늬병 발생 원인으로 분석했다. 고산지역 기상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각각 1.2℃, 0.8℃ 높았다. 강수량도 각각 118.2㎜, 71.6㎜ 많았다.

특히 서부지역은 제주지역 내 브로콜리 주산지다. 지난해 드론 면적조사 결과 재배면적이 741.2ha로 도 전체(1,009.4ha)의 73.4%를 차지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배지를 꾸준히 살펴 병든 잎은 조기 제거하고 병 발생 초기부터 등록 약제를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살포해야 한다.

11. 20.
제주매일 9

문

(삼다일보: 2026년 11월 20일)

○ 브로콜리 검은무늬병 피해 확산 우려-5면

브로콜리 검은무늬병 피해 확산 우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강병수)는 최근 서부지역 브로콜리 재배포장에서 검은무늬병 발생이 확인되면서 농가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고 19일 밝혔다.

서부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 18일 한림읍·한경면·대정읍·안덕면 등 주요 재배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예찰을 실시한 결과, 브로콜리 잎과 줄기에서 검은무늬병 증상이 확인됐다. 특히 일부 재배지에서는 수확기 꽃봉오리에서도 병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검은무늬병 발생은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잦은 비가 이어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서부지역은 도내 브로콜리 주산지로, 지난해 드론 면적조사 결과 재배면적만 741.2ha로 제주도 전체(1009.4ha)의 73.4%를 차지하는 만큼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검은무늬병은 곰팡이에 의해 발생하며, 초기에는 잎에 황록색의 작은 반점이 나타나다가 점차 암갈색의 겹무늬로 확대되고 반점 주변이 누렇게 변하는 것이 특징이다.

꽃봉오리에 병이 발생하면 해당 부위가 검게 변하거나 썩어 상품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어 조기 발견과 방제가 중요하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배지를 수시로 살펴 병든 잎 등을 조기에 제거하고, 병 발생 초기부터 등록 약제를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살포해야 한다.

강병수 소장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잦은 비로 검은무늬병이 잎에서 꽃봉오리까지 번질 우려가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배지 예찰을 강화하고 등록 약제를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적기에 방제해 달라"고 말했다.

김동건 기자 kdg@samdaily.com

11. 20. 삼다일보 5

(한라일보: 2026년 11월 20일)

○ 잦은 비날씨에 브로콜리마저…곰팡이병 확산-6면

잦은 비날씨에 브로콜리마저… 곰팡이병 확산

수확기 맞은 서부지역 주요재배지 검은무늬병 피해
주요 식용부분 꽃봉오리서도 발생… "적기 방제를"

잦은 비날씨로 제주지역 콩나물 콩이 곰팡이에 의해 썩는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확기를 맞은 브로콜리에서도 곰팡이병 일종인 검은무늬병이 확산해 비상이 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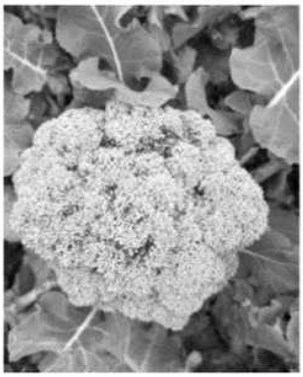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8일 한림읍·한경면·대정읍·안덕면 등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브로콜리 잎과 줄기에서 곰팡이에 의해 발생하는 검은무늬병 증상이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또 일부 재배지에서는 브로콜리 꽃봉오리에서도 검은무늬병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로콜리 전체 부위 중 사람들이 주로 먹는 것이 꽃봉오리다. 잎과 줄기에서 검은무늬병이 발생하면 상품성이 떨어지더라도 해당 부위를 제거해 팔 수는 있지만 꽃봉오리에서 발생하면 출하조차 못한다고 농업기술원은 설명했다.

검은무늬병은 곰팡이에 의해 발생하며, 초기에는 잎에 황록색의 작은 반점이 나타나다가 점차 암갈색의 겹무늬로 확대되고 반점 주변이 누렇게 변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검은무늬병이 집중된 서부지역은 도내 브로콜리 주산지로 전체 재배 면적의 73.4%를 차지하고 있다.

검은무늬병 발생은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잦은 비가 이어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에서 재배되는 브로콜리 꽃봉오리에서 검은무늬병이 발생한 모습. 도농업기술원 제공.

고산지역 기상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과 11월 1일부터 17일까지 평균기온은 평년(1991~2020년)보다 각각 1.2℃, 0.8℃ 높았으며, 강수량도 각각 118.2㎜, 71.6㎜ 많았다.

농업기술원 측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배지를 수시로 살펴 병든 잎 등을 조기에 제거하고, 병 발생 초기부터 등록 약제를 안전사용 기준에 따라 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방제 약제로는 티오파네이트메틸 수화제(나1), 펜티오피라드 액상수화제(다2), 디페노코나졸 수화제(사1), 디니코나졸 수화제·액상수화제(사1), 이프로디온 수화제(마3) 등이 있다.

강병수 서부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잦은 비로 검은무늬병이 잎에서 꽃봉오리까지 번질 우려가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재배지 예찰을 강화하고 등록 약제를 안전사용 기준에 따라 적기에 방제해 달라"고 말했다.

11. 20.
한라일보 6

이상민기자 hasmel@hallla.com

(제주일보: 2026년 11월 20일)

○ 2026제주감귤박람회 개최-9면

▲2026제주감귤박람회 개최 △일시=11월 19일(목)~11월 23일(월) △장소=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일원.

11. 20.
제주일보 9

(제민일보: 2026년 11월 20일)

○ 한라산 올해 첫눈 관측-1면

한라산 올해 첫눈 관측

2년 연속 11월 18일 첫눈

삼각봉 4.4㎝·남벽 3.8㎝ 등

21일, 산지 최대 10㎝ 눈

한라산에서 지난해와 같은 날짜에 첫눈이 관측되면서 2년 연속 11월 중순에 겨울의 시작을 알렸다.

19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북서쪽 찬 공기와 서해상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18일 한라산에서 올해 첫눈이 관측됐다. 지난해에도 11월 18일 어리목과 영실 등 한라산 일대에서 첫눈이 확인됐다.

19일 오전 10시 기준 주요 지점의 24시간 신적설량은 삼각봉 4.4㎝, 한라산남벽 3.8㎝, 사제비와 영실 각각 0.8㎝로 집계됐다.

제주 산지에는 18일 오후 7시35분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가 19일 오전 9시 해제됐다. 다만 산지를 중심으로 다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19일 밤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됐다.

첫눈 이후에도 제주지역에는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11. 20.
제민일보 1

[illegible]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 한라산 산지와 일부 중산간 지역에는 기온에 따라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8도, 낮 최고기온은 11~12도로 예상된다. 오전까지 강한 바람도 이어져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지겠다.

21일에도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으며, 한라산 남쪽 지역은 구름이 많겠다. 중산간과 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제주기상청은 21일까지 제주지역에 5~20㎜의 비가 내리고 산지에는 3~10㎝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6~8도, 낮 최고기온은 11~12도로 예상된다.

22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8도, 낮 최고기온은 11~13도로 전망된다.

해상에서는 20일 제주도 앞바다의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고 21일에는 1.5~3m, 22일에는 0.5~2m로 점차 낮아질 전망이다.

제주기상청은 산간도로에 쌓인 눈이 얼면서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차량 운행과 등산 안전사고에 주의를 당부했다. 조병관 기자

(한라일보: 2026년 11월 20일)

○ 출하 시작된 제주산 브로콜리 가격 '비상' -6면

출하 시작된 제주산 브로콜리 가격 '비상'

평년 대비 27% 하락하며 초반 가격 약세
23일부터 통합마케팅 수급안정 지원사업

제주산 브로콜리 출하가 시작됐지만 조생종 출하 물량이 늘어난데다 다른 지방과 출하시기가 겹쳐 가격이 약세를 띠면서 수급안정대책이 추진된다.

(사)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는 2026년산 제주 브로콜리의 시장 가격을 지지하고 도매시장 출하량 분산을 위해 '통합마케팅 수급안정 지원사업'을 이달 23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제주산 브로콜리 재배면적은 1100ha, 생산량은 1만3338t으로, 지난해(1010ha, 1만2263t)보다 각각 8.9%, 8.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1. 20.
한라일보 6

11월 1~19일 서울 가락시장의 브로콜리 평균 경락가격은 8kg 상자당 1만9000원으로 평년(2만5900원)보다 26.6% 떨어졌다.

이같은 가격 하락은 강원·충북 등 다른 지역의 브로콜리 출하가 10월 이후까지 이어지고 있고, 도내 조생종 재배 비율 확대(20%→25%)와 조기 정식으로 첫 출하 시기가 10월 초로 평년보다 열흘 이상 앞당겨지면서 출하 초반 물량이 일시적으로 집중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통합마케팅 수급안정 지원사업 물량은 총 600t으로 전년 사업량(457t)보다 31.3%(143t) 확대한다. 사업비 3억6000만원(지원단가 kg당 600원)은 모두 도농어촌진흥기금의 수급안정사업비로 지원한다.

사업은 조생종 출하가 집중되는 1단계(11월 23~12월 31일)에 200t(1억2000만원), 중·만생종 주출하기인 2단계(내년 1월 1일~2월 28일)에 400t(2억4000만원)을 나눠 지원한다.

또 브로콜리의 가공 다변화를 위해 개별급속냉동(IQF)과 스낵 가공사업 추진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관련 업체와 협의해 가공 가능 물량과 사업 추진 조건을 확인하고, 가공품 품질과 수율 확보를 위해 상품 위주의 원물 활용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제주브로콜리연합회는 자체 사업으로 자조금 1억원을 활용한 약제비 지원사업을 추진, 농가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